

EA(Enterprise Architecture)기반 표준화 추진 방안

한국전산원 신신애

1. 서론

오늘날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 및 확산은 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은 증대시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보화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대표적인 정보화 문제점들은 단위 업무 또는 기능 위주의 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기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정보화 마스터플랜의 부재와 정보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중복 개발, 상호운용성의 미흡 및 정보시스템 복잡도의 증가와 정보자원 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정보화 추진 방법에 대한 문제의 인식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계획 및 투자, 관리를 위한 진보된 정보화 추진 방법론인 EA(Enterprise Architecture)¹⁾가 등장하게 되었다. EA는 그림1과 같이 실제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의 업무와 정보시스템을 '가시화', '표준화', '체계화'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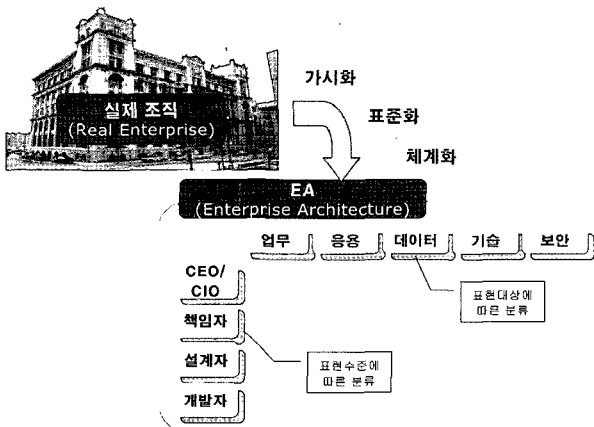


그림 1 EA 특징

- 가시화 : EA는 조직 자원을 전사적인 범위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표현하여 가시화 한다.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EA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와 동일한 개념

- 표준화 : EA는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는 원칙, 지침, 업무, 기술 등을 표준화 한다.
- 체계화 : EA는 조직을 구성하는 업무와 정보시스템을 조직 구성원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정형화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EA의 특징 중 '표준화' 관점에서 EA를 분석한다. EA의 개략적인 개념과 함께 EA와 표준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EA에서 표준화를 실현하는 도구로 참조 모델, SOA를 통한 접근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EA를 통하여 표준화를 수립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2. EA와 표준화

본 장에서는 EA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과 EA와 표준화의 관계를 제시한다.

2.1 EA 개념

E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EA는 「조직의

표 1 EA 정의

출처	정의
미국 예산관리처 (OMB A-130)	업무, 업무 프로세스, 정보기술 간의 관계를 현재와 미래에 대해 명시화한 설명 또는 문서
미국 전자정부법 (E-Government Act of 2002)	EA는 전략적 정보자산 기반으로 조직의 사명, 사명 수행을 위한 정보, 사명 수행을 위한 기술, 신규 기술 적용을 위한 전환 절차를 정의하며, 현행 아키텍처, 목표 아키텍처, 이행 계획으로 구성됨[1]
일본 EA책정 가이드라인 (IT Associate 협의회)	조직 전체의 업무와 시스템을 통일적인 방법으로 모델화하여, 업무와 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의 설계·관리방법[3][4]
한국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기술과 절차에 따라 기관 전체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제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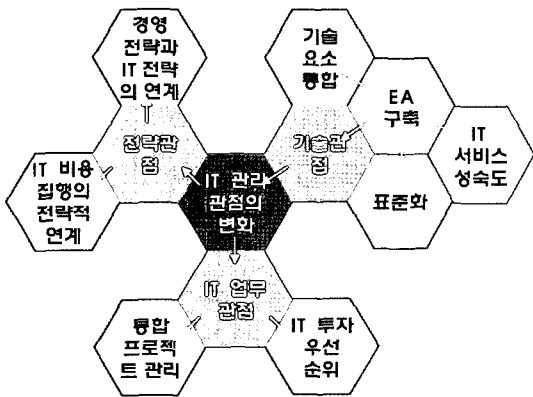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전사적인 정보화 설계도이며, 관련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정보화를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내포한 체계, 라고 할 수 있다.

EA는 일반적으로 건설 분야의 도시 계획도에 비유된다. 도시 계획도와 같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건물, 도로, 학교, 다리 등이 설계되고 건설되어야 살기 좋은 최적화된 도시가 건설되듯이 정보화 분야에서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의 마스터플랜 하에 개별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최적의 정보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EA는 도입하는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호운영성의 증대, IT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IT 투자관리 및 성과 관리 능력 증대, 업무/경영 전략과 IT의 연계, 업무 및 IT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보자원 통합관리 등에 적용될 수 있다.

2.2 EA와 표준화

서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EA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표준화이다. 지금까지의 정보화는 전체적인 기준 및 표준이 없이 단위 사업 또는 개발자 중심으로 정보화가 추진되고 상이하게 구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EA를 도입함은 우리 조직의 정보화를 위한 표준 및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괄적인 전체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수립된 개괄적인 조직의 전체 아키텍처 하에서 세부적이고 상세한 아키텍처를 구체화함을 의미한다.



(Reference : 유호정, 2005. 10)

그림 2 IT 관리관점 연관도

가트너그룹의 자료에 따르면 그림2와 같이 3개의 축을 기준으로 하여 8개의 영역에서 IT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관점도 변화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2에서도 알 수 있듯이 'EA 구축'을 통하여 '기술 요소의 통합', '표준화', 'IT 서비스 성숙도'가 진행되고

이것이 IT 관리의 기술적인 관점을 구성한다. 'EA의 구축'이 표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EA에서 표준화해야 할 대상은 아키텍처 수립 대상인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이 모두 해당된다. 조직의 업무에서부터 IT까지 모두를 조직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체계화 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EA기반 표준화 추진

EA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표준화 추진 방법은 참조 모델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EA에 SOA 개념을 접목하여 서비스와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준화하고 공유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방법을 통한 표준화 관점을 논한다.

3.1 참조 모델에 기반한 업무에서 IT까지의 표준화

EA에서 표준화를 위한 표준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참조 모델이다. 참조 모델은 아키텍처의 일관성 및 통일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공통의 자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구성에 필요한 표준화된 표현 및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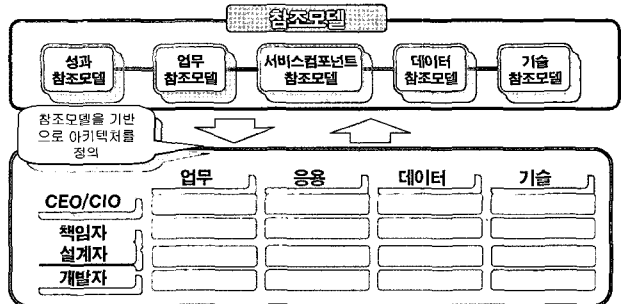


그림 3 EA와 참조 모델

참조 모델은 그림3과 같이 아키텍처 계층별(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로 각 아키텍처 수립 시 참고 및 활용할 Dictionary 또는 빌딩 블록으로 참조 모델을 활용하여 아키텍처를 정의 및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조 모델은 5종으로 구성되며 각 참조 모델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각 참조 모델과 해당 아키텍처의 표준화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3.1.1 업무 표준화와 업무 참조 모델

EA에서 업무의 표준화는 해당 기관의 성과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식별하고 조직화, 체계화 및 정형화하여 기능의 중복이 없도록 공통 기능을 식별하는 것이다.

업무 참조 모델은 업무에 대한 분류와 정의를 체계화

한 것으로 업무의 표준화 또는 업무 설계의 기준이 된다. 업무 참조 모델은 중복 업무, 유사업무 식별을 통하여 업무의 중복 제거 및 협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표 2 참조 모델의 정의

참조 모델	정의
성과 참조 모델 (PRM)	정보화성과의 측정을 위한 항목과 지표 및 방법을 정의
업무 참조 모델 (BRM)	업무아키텍처의 기준이 되며, 아키텍처 대상 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 등을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정의
서비스 컴포넌트 참조 모델 (SRM)	응용아키텍처의 기준이 되며, 재사용 또는 공동활용 가능한 응용 서비스의 기능을 분류하고 정의. 서비스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또는 웹 서비스 등으로 구현되어 제공 및 관리가 가능
데이터 참조 모델 (DRM)	데이터아키텍처의 기준이 되며, 대상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체계 및 데이터의 표현 및 정의를 위한 표준 및 기준을 제시. 데이터 참조 모델에 따른 표준 데이터 모델까지 제시 및 관리 가능
기술 참조 모델 (TRM)	기술아키텍처의 기준이 되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기술을 분류 및 식별하고 적용 표준을 정의. 표준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제품까지 제시 및 관리 가능

3.1.2 응용 기능의 표준화와 서비스 컴포넌트 참조 모델

EA에서 응용 기능의 표준화는 기관 또는 도메인내 정보시스템들의 상호운용성과 일관성 있는 구현을 위하여 단위 응용 기능(컴포넌트)들이 가져야할 업무만이 아닌 재사용 가능하고 공통적인 기술기능 요건을 정형화 및 체계화 하는 것이다. (예: '인터넷 민원 발급' 기능이 가져야 할 기술기능 요건: 위변조 방지 기능, 복사 방지 기능, 중복 프린트 제어 기능 등)

응용을 위한 참조 모델인 서비스 컴포넌트 참조 모델은 응용 기능의 표준화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관 또는 특정 도메인에서 정보시스템들이 공동 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응용 기능들을 식별 및 체계화하고, 해당 응용 기능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능 요건들을 정의한다. 서비스 컴포넌트 참조 모델은 궁극적으로 이를 구현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또는 웹서비스나 공통서비스로 구현되어 리파지터리에 저장되어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 컴포넌트 참조 모델은 공공 부문의 업무 지원 컴포넌트에 대한 단일되고 통합된 분류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부문 응용 서비스의 용이한 식별 및 재 활용을 촉진시키고 응용 서비스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킨다.

3.1.3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참조 모델

EA에서 데이터 표준화는 기관 또는 해당 도메인에서

사용될 데이터를 식별하고 의미와 구문, 데이터 모델을 일관성 있게 정의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참조 모델은 데이터의 표준화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관 또는 해당 도메인의 데이터 중복 구축을 막고 공동 활용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데이터의 분류체계와 데이터 사진, 메타데이터 등 데이터에 대한 표준 정의를 제공한다.

데이터 참조 모델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리파지터리를 통하여 표준화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저장과 공동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3.1.4 기술 표준화와 기술 참조 모델

EA에서 기술 표준화는 기관 또는 해당 도메인의 정보화를 위하여 적용할 기술들과 표준을 선정하고 적용함으로써 공통의 정보기술 기반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기술 표준화는 이기종간 이식성 및 기존 시스템의 확장성 증진,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재사용 제고, 표준기반의 개발을 통한 개발 효율성 증진과 상호운용성 증대, 소프트웨어 관리 비용 절감, 운용·관리·유지개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한다.

기술 참조 모델은 기술의 표준화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과 표준을 제시한다. 기술 참조 모델은 정보시스템을 위한 적용 기술 및 표준, 제품의 체계적 정의를 가능하게 하고, 정보기술자원의 체계적인 식별을 통해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보화 신기술 도입 및 기존 기술 폐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EA에서 기술 참조 모델을 통한 표준화와 그에 따른 기대는 매우 높은 편으로, 국내 조사결과에서도 EA에 대한 다양한 요구중 기술아키텍처와 기술 참조 모델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개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5].

참조 모델을 이용한 EA 수립 개념은 그림4와 같다. 각 아키텍처 계층을 정의할 때 해당하는 각 참조 모델에서 표현 및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아키텍처를 정의하게 된다. EA는 각 아키텍처 계층별 표준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 참조 모델을 준수하여 수립됨으로써 아키텍처 및 시스템의 표준화와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업무·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연계 및 상호운용성 증대, 복잡성 감소
- 서비스 컴포넌트 표준화를 통한 기관내 또는 기관간 공통서비스 발견
- 데이터의 공동활용과 재사용 증진
- 기술 획득 및 사업 계획시 중복 여부 사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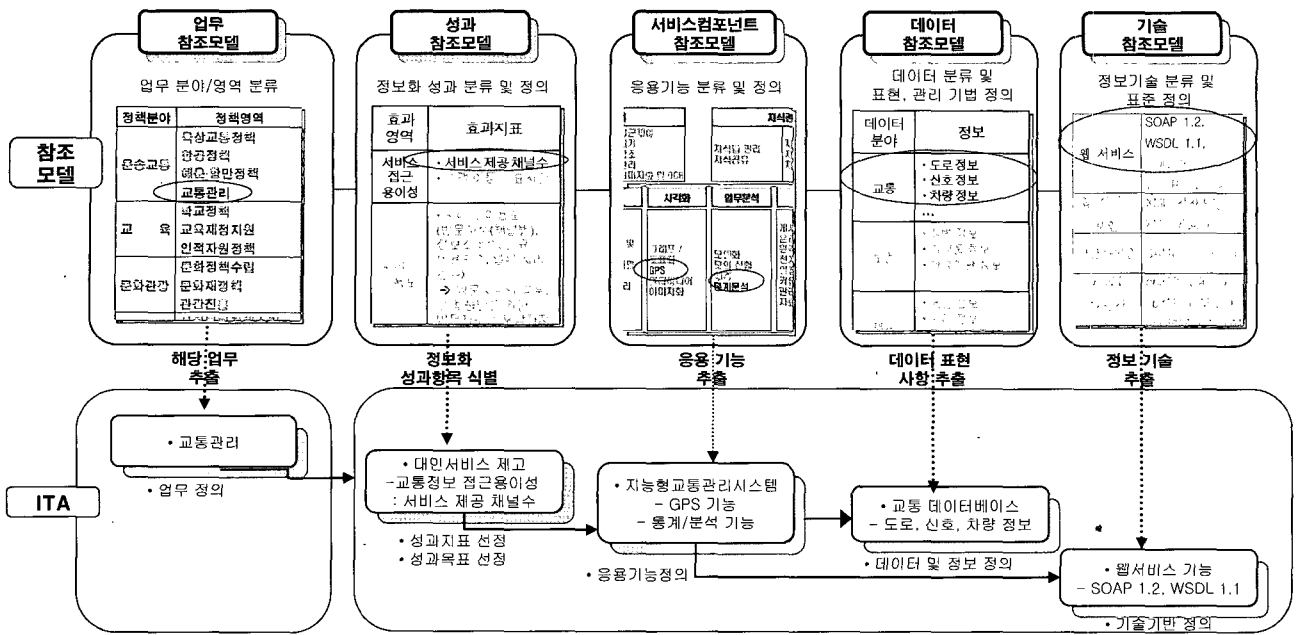


그림 4 참조 모델을 이용한 아키텍처 정의

• 기능과 시스템의 체계적 분석

3.2 EA에 SOA를 접목한 서비스 표준화

최근 EA와 함께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ervices-Oriented Architecture; 이하 SOA)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주목 받고 있다(7).

SOA는 서비스라 불리는 분할(decomposition)된 애플리케이션 조각들을 느슨하게 연결해 하나의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아키텍처로 웹 서비스, ebXML등의 모태가 되는 개념이다(7). SOA에서 말하고 있는 서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제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의 서비스들과 달리 상호운용성이 강조된다.

최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많은 선진 전자 정부들은 차기 범정부 시스템의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모든 조직의 기능 및 기술을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EA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SOA와 전사적 아키텍처는 모두 조직의 정보기술 및 자원의 보다 효율적 활용 및 이들 간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재사용성을 지원한다. 전사적 아키텍처가 조직의 업무와 정보시스템간의 종합적 관계 및 서비스 지향을 위한 통합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SOA는 그림 5와 같이 전사적 아키텍처에 기반하여 서비스, 데이터, 기술기반에 대한 상호운용성, 재사용성, 공동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개념의 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8). SOA는 전사적 아키텍처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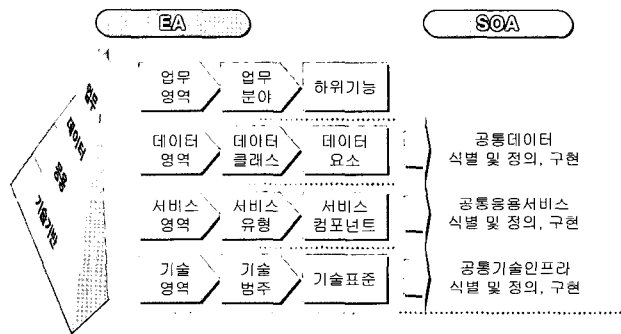


그림 5 EA와 SOA와의 관계

EA와 SOA, 웹서비스 관계를 정의하면 “웹 서비스는 SOA의 구현을 위한 현존하는 최적의 기술 대안이며, SOA는 차세대(To-Be) EA 구현을 위한 최적의 아키텍처이다”라고 할 수 있다(7).

SOA는 특정 기술이나 환경에 무관하게 유연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이기종 정보시스템들의 통합과 연계를 가능하게 하므로 SOA를 기반으로 EA를 수립하면 서비스 재활용, 상호운용성, 융통성 및 비즈니스에 대한 빠른 대처 능력 확보 등의 다양한 효과들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SO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 및 표준 등을 적용해야 하며 SOA를 기반으로 서비스 재활용 및 상호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프로세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 EA를 통한 표준화 추진사례

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EA를 통한 표준화 추진사례를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EA를 통한 표준화 사례는 참조 모델과 아키텍팅을 통한 표준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SOA를 적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SOA를 적용한 EA 추진사례가 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4.1 참조 모델 기반의 미국 연방정부 사례

미 연방은 EA의 효과중 하나로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터페이스와 정보의 흐름이 표준화되어 상호운용성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비즈니스 규칙도 조직 전반에 일치되도록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6].

미 연방정부는 연방 전체차원에서 미 연방기관간의 통합 및 표준화를 위한 도구로 참조 모델을 활용한다. 미 연방정부는 전자정부 사업 및 개별 정보화사업들이 미 연방의 EA 참조 모델을 이용하여 아키텍처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참조 모델이 기관 간 공통적인 프로토콜의 역할을 하여, 기관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연방정부 전반의 업무 및 정보기술, 정보자원의 중복 파악, 기관 간에 연관된 이슈 분석, 연방기관 간 협업 기회의 발견 등을 용이하게 하였다.[2]

4.2 참조 모델 기반의 한국 정부 사례

국내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EA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조 모델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각 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표준이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아키텍처와 기술 참조 모델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사업 및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의 통일성 있는 기술표준에 대한 방향 및 기준이 부재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들이 도입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저해 및 복잡성의 증가가 초래됨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보안성, 사용자편의성 등 최소한의 품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기술 요건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술 참조 모델의 기술분야중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사용자편의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용자인터페이스', '응용', '데이터',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 '보안', '국제화'의 7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적용할 표준과 세부 구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4.3 국방의 서비스, 데이터, 기술의 표준화 사례

미국 국방에서는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COE(Common Operating Environment, 공통 운영환경), SHADE(SHARED Data Environment, 공유데이터환경), JTA(Joint Technical Architecture, 합동기술구조)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참조 모델과 유사한 개념으로 각각 응용 기능, 데이터,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COE는 모든 사용자 응용에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으로 컴포넌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미국방도 COE 개념을 SOA 개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SHADE는 데이터 표준화와 공동활용을 위한 전략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을 합쳐서 만든 데이터의 공유 환경으로, 메타데이터 관리, 공유 데이터 액세스, 물리적 데이터 관리, 공유데이터 관리의 4계층으로 구성하였다.

JTA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프로토콜이나 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을 선정 및 제시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의 도입 시 이를 의무 준수토록 하고 있다. JTA는 TRM 기술분류중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관여가 깊은 분야를 추출하여 '정보처리 분야', '정보전송 분야', '정보-모델링·메타데이터 및 정보교환 분야', '사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 '정보보안 분야' 등 5개 분야를 정의하고 여기에서 현재 준수해야할 표준,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 표준, 폐기되어야 할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국방에서 각 분야에 대한 표준 선정시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 JTA의 목적인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고 가격 효율성이 있는가?
- 표준의 지적재산권이 공개되어 있는가? 제한되어 있는가?
- 표준개발 기구(IEEE, ISO 등)는 어디이며 표준화 진행상황(draft, final, approved)은 어떠한가?
- 표준을 구현한 기존 상용 제품이 있는가?
- 표준의 상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필수의무, 신규등장, 국내특화내용 추가 등)
- 기존 의무사항 표준과 충돌되는 것이 없는가?

4.4 서울시의 정보화 추진 프로세스 표준화

서울시는 '03년부터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EA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EA를 구축(업무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응용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 및 TRM/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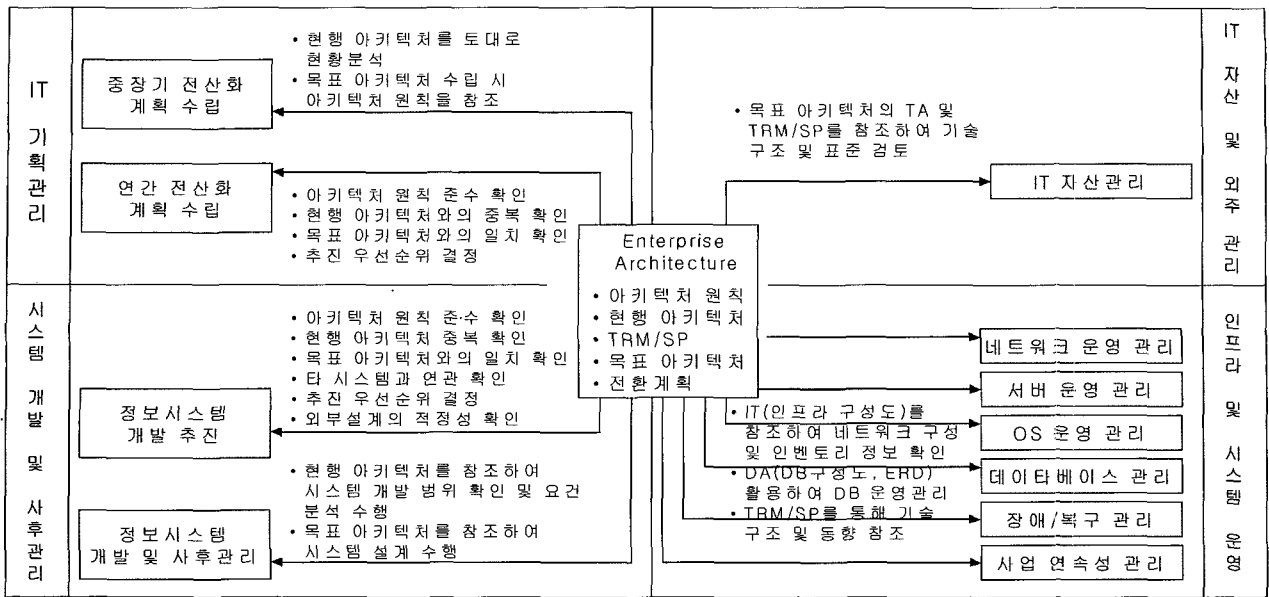


그림 6 교보생명의 EA기반 정보화업무 체계

구축)하고, 정보시스템들을 통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에 도입되는 정보시스템과 정보기술을 체계적으로 통제 및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및 정보화 사업 절차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였다(9).

특히, 서울시는 정보화사업 추진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 및 표준화하고 이들과 EA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시스템화 하여 표준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통제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5 교보생명의 정보화 업무 표준화

교보생명은 그림6과 같이 EA 활용체계를 수립하여 IT 기획관리, IT 자산 및 외주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및 사후관리,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 등 조직의 정보화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였다(10).

또한 TRM을 수립함으로써 정보 기술에 대한 공통된 개념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통일된 용어 정의 및 표준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정보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기획, 획득, 개발 과정을 조정 및 통제하고 정보기술의 이식성과 확장성, 상호운용성 및 관리성 증대 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4.6 BC카드의 IT자원 표준화

BC카드의 '전사 정보화 표준화 추진', '전사적 IT구조 관리체계 정비', '지식경영 인프라 및 협업 기능 강화'의 3가지 목적으로 EA를 추진하였다. 전사 정보화 표준화 추진은 향후 시스템 통합을 위한 추가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전사적 IT구조 관리체계 정비는 단위업무별 정보화 추진을 지양하고 EA 구축을

통해 IT자원의 통합적 관리체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경영 인프라 및 협업 기능 강화는 현업부서와 IT조직간 책임과 역할 및 업무 Flow의 정의를 통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그림7과 같이 TRM과 표준프로파일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의 획득 지표를 수립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시 개발업체에 표준정보를 제시하여 정보기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IT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고, TRM/SP를 활용한 전사 정보화표준 추진체계를 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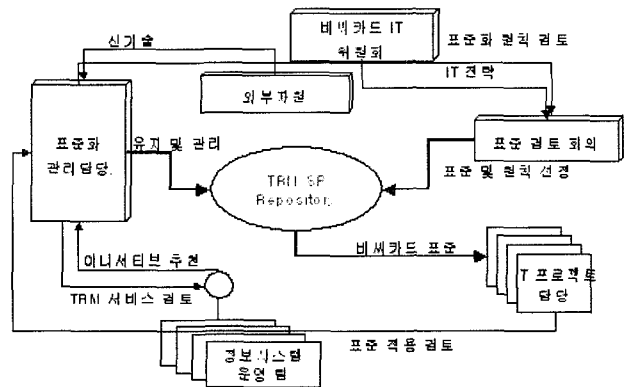


그림 7 BC카드의 정보화 표준 추진체계

5. 결 론

EA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업무와 정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성과 제고 관점에서 조직의 업무와 정보시스템을 '표준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지원한다. EA를 도입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위한 표준 및 기준을 수립함을 의미한다. 조직의 업무에서부터 정

보시스템과 정보기술까지 표준화를 통하여 체계를 수립함은 정보화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EA를 기반으로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업무와 정보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도구로는 참조 모델이 있다. 참조 모델은 EA의 각 계층을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Dictionary 또는 빌딩블록으로, 표준화된 표현 및 기준과 구현된 실체를 정의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조 모델을 이용하여 아키텍처를 정의하게 되면 아키텍처의 표준화와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통의 자원을 식별해 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EA의 핵심 사상인 재사용과 공동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SOA 개념을 접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SOA는 서비스의 재사용과 상호운용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프로세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최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E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조직의 표준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S., E-Government Strategy 2002, 2002. 2.
- [2] FEA Working Group, "E-Gov Enterprise Architecture Guidance : Common Reference Model V2.0," 2002.7.
- [3] 日經コンピュータ, "EA大全," 2003.9.
- [4] IT Associate 협의회(일본), 업무·시스템 최적화 계획에 대하여(V1.1), 2003.12.
- [5] 한국ITA협회, 국내 EA 도입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조사 보고서, 2003.7.
- [6] 한국전산원, EA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측정 모델 연구, 2003.11.
- [7] 한국전산원, 공공부문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도입 전략, 2004.12.
- [8] 이현중, 신신애, 안현수, 변현진, SOA기반 EA접근방안, 정보과학회지, 2004. 10.
- [9] 윤정수, 서울시 EA거버넌스 추진 전략, 제2회 ITA컨퍼런스, 2004. 11.
- [10] 김석준, 교보생명 EA 기반구축 프로젝트 추진 사례, 제2회ITA컨퍼런스, 2004. 11.

신 신 애



1999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석사)
2002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사수료)
1993~현재 한국전산원 ITA팀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소프트웨어공학, 전사적아키텍처,
정보시스템감리
E-mail : sashin@nca.or.kr
